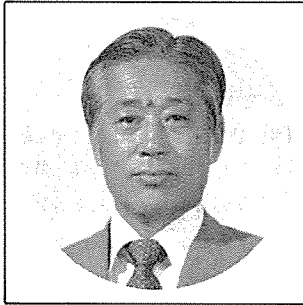


“研究用 器資材의 國産化시급”



朴 天 緒

(農村振興庁 맥류연구소 소장)

주어진 제목을 보고 技術이란 무엇인가 부터 생각하게 된다. 技術이란 수없이 많은 知識의 集結體로서 특정 行動規律이나 물건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技術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知識의 개발이 技術振興의 기본일 수 밖에 없다고 보며 새로운 知識의 개발은 研究라는 人間の 두뇌활동과정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독창적 연구에는 이에 적합한 人員과 研究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자재가 필수요건이라 하겠다. 研究에 적합한 人員의 확보는 선천적 資質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으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고급 연구인력의 확보나 研究自體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研究에 적절한 기자재가 국산화되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온 지 오래 되었다. 그간 기획있을 때마다 관계 기관에 研究用 기자재의 국산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研究에 쓸만한 기자재는 거의 외국산이어서 에프터서비스등의 불충분으로 마음놓고 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自然現象의 因果律을 추구하는 研究과정에서는 관찰·경험·조사 등을 통하여 因果律을 認知하는 直觀을 통하여 설정한 假說을 증명하는 실험, 그리고 이들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知識들을 바탕으로 한 自然法則性의 定立등에 수 없이 많은 최신 기자재가 활용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있다. 즉, 성능이 뛰어난 전자현미경이나 초미량성분의 검출이 가능한 분석기가 아니면 연구할 수 없는데, 외제 기기를 쓰다가 고장으로 3~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연구의욕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고급 연구기자재 자체가 과학기술의 결집체이고 이것이 결국 과학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 이들 정보가 곧 바로 기술개발에 활용될 것이라면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이와같은 기자재의 국산화라고 생각된다.

日本의 科學技術이 급속도로 발전한데는 각종 연구기자재의 국산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며 과학기술의 최선두 주자인 美國이 최근에 15억불짜리 天體망원경을 우주공간에 설치한다는 사실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도 과학기술발전의 기본은 우선 연구기자재의 국산화와 보급확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